

취임 1년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



“유통과정 3단계로 축소 농산물 안정 공급 최선”

“경제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은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들은 제대로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산다는 국민적 합의만 이룬다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고민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내 직거래 장터를 찾아 “유통 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 개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국민이 유통구조 개선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집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류센터는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게 된다. 대도시 농협은 기존 153곳이던 직거래 장터를 올해 안에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도 시작한다.

농협으로 변신시키고, 방돔방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다지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다. 김 대표이사는 자신을 ‘촌놈 중 성공한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양과 두 차를 심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농협 말단 직원에서 시작한 245만명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어렵도 않다.

6만8000km 누비며 판매농협 구현 앞장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 도매 역량 강화

골목상권과의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

17일 무안과 함평 현장지도 차 지방을 찾은 김 대표이사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CEO를 지향하는 자신에게 ‘꼭 해야 할’ 아니 ‘반드시 해낼’ 미션을 준 셈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이사는 “대통령은 현 7단계인 농산물 유통단계를 최소 2단계(직거래 형태)로 끌어 내린다는 의의인 것 같다. 궁극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농협이 거래 주체가 되는 3단계로 축소해 안정적 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안을 늦어도 5월까지의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변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양과 선별장을 방문해 국산양과 수급동향을 점검했다”며 “최근 가락도매시장의 3월 평균 양과가격은 상품 kg당 1800원대로 전년 가격 보다 3배, 평년가격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양과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국내 저장양과 물량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정기권이 대형마트 규제를 외치면서 농협 유통사업도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 농업인 판로를 늘리려면 하나마트를 더 키워야 하지만, 골목상권의 예로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해답은 본안에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제대로 팔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한 것도 큰 업적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그가 방문한 현장은 국내 4만km, 해외 2만8000km로 총 6만8000km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을 92회 왕복, 지구를 1.7바퀴 돈 것과 같다.

김 대표이사는 이른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농협이 협동조합들의 협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이 협동조합의 마중으로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돕고 새롭게 출범한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생태계가 성장하도록 도우는 과정에서 농협의 사업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신세계, 유신열 신임 대표이사 선임

광주신세계는 17일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유신열 총괄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5일 진행된 회계기준 2012년도 제18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상대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등을 통과시켰다.



역량의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신 열은 출생인 유 대표이사는 서강대를 나와 1989년 ㈜신세계에 입사, 신세계 경영지원실 사무국 과장을 시작으로 경영기획실 관리팀 과장, 기획관리팀장 등 그룹의 기획 및 재무 업무를 도맡아왔으며 신세계 그룹 내에서는 경영관리 분야에 정통한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자녀 교육 이렇게 하세요”

光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5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소 직장근무로 인해 학부모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위경림과 아버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가졌다.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2시간 동안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은행 임직원 및 가족, 학부모 45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한 교육평론가 이범 강사는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 보좌관인 전 메가스터디 스타강사로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미래형 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최재호기자 lion@

북구, 첨단 창고형 할인점 건축 불허

광주시 북구가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첨단 2지구에 입점을 시도 중인 창고형 할인점 ‘VIC마켓’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이 지난 7일 신원동 860번지 일대에 신청한 창고형 할인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지 안팎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는 애초 건축·교통심의 시 반영된 주차장 진입부분 1차선 확보만으로는 교통 혼잡 상 장애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판매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s, and special offers for different regions like Europe, East Asia, and Japan/Korea.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text.